

오보스 어스 OBOS EARTH & US

지구와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



네번째 이야기

나에게 평화는 다.



나에게 평화의 반대말은



Peace be with you



"평신도들은 평화를 거부하거나 훼손하는 모든 것에 직면하여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한 이방인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평신도들은 평화를 거부하거나 훼손하는 모든 것에 직면하여

누군가에게 평화의 반대말은







공동의 집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 평화롭지 못한 지구촌 이웃에 관심 갖기

“미얀마 사태를 접한 형제자매들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하며”

- 미얀마 사태를 접하는 한국 천주교 주교단 성명서 -

미얀마 주교회의 의장 찰스 마웅 보 추기경께서는 최근 사태에 대하여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평화는 가능합니다. 평화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길을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최근 이웃 나라 미얀마에서 일어난 폭력과 이로 말미암은 유혈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오로지 자유, 민주, 평화를 외쳤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존엄한 생명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차라리 날 쏘세요.” 중무장한 경찰 병력 앞에서 무릎을 꿇은 안 누 타웅 수녀의 울부짖음이 귓가에 생생하게 메아리칩니다.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차별 폭력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모든 폭력 사태는 “그 이전보다 훨씬 나쁜 세상을 남겨 놓습니다”(「모든 형제들」, 261항).

한국도 미얀마처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의 호소와 연대가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생명과 평화,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는 길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에 대한 존중이 자리해야 합니다(「모든 형제들」, 232항 참조). 한국 천주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 시기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미얀마 형제자매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형제애로 연대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루어진 대화를 통하여, 미얀마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적인 국가 공동체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둘째, '세계 평화의 날'을 기억하고 담화문 읽어 보기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54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2021년 1월 1일)

평화의 길인 돌봄의 문화

1. 새해를 맞이하여 저는 국가와 정부의 수반들, 국제기구 책임자들, 다양한 종교의 영적 지도자들과 신도들, 그리고 선의의 모든 사람에게 깊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인류가 개인과 공동체, 민족과 국가 간의 형제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저의 이 큰 기원을 여러분 모두에게 전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야기한 대규모 보건 위기로 얼룩진 한 해였습니다. 이는 수많은 분야에 퍼진 전 세계적 현상이 되면서, 기후, 식량, 경제, 이주 문제처럼 서로 밀접히 관련된 위기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큰 고통과 불안을 야기하였습니다. 저는 특히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또한 의사, 간호사, 약사, 연구가, 자원봉사자, 원목 사제, 병원과 보건소 직원들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그들은 큰 노고와 희생으로, 심지어 일부는 자기 목숨을 잃기까지 하면서도 병자들 곁에 함께 있어 주고 고통을 덜어 주며 생명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저는 정치 지도자들과 민간 부문에 거듭 호소합니다. 아픈 사람들과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모든 사람을 돌보는 데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1)

애덕과 연대의 수많은 증언이 있지만, 애석하게도 이와 더불어 여러 형태의 국수주의,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증, 심지어는 죽음과 파괴의 씨앗을 뿌리는 전쟁과 분쟁도 새롭게 기승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류의 길을 얼룩지게 한 이러저러한 사건들은, 형제애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피조물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평화의 길인 돌봄의 문화'를 이번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주제로 선택하였습니다. 돌봄의 문화는 오늘날 매우 만연해 있는 무관심과 버림과 대립의 문화에 맞서 싸우는 길이 됩니다.

셋째,
지금 바로
여기에서
기도로
함께 하기

평화를 구하는 기도

-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 그릇됨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
-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보스 어스 OBOS EARTH & US

지구와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



네번째 이야기 끝.